

햇살아름답지만
6년차
농부입니다



하늬바람 부는 시월입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하늬바람'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하늬바람에 곡식이 모질어진다는 속담은
여름이 지나 서풍이 불게 되면
곡식이 여물고 대가 세진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미쁘다'라는 순우리말도 있습니다.
옛말 '미쁘다'에서 유래한 말로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는 10월,
앞으로도 하늬바람에 여무는 곡식처럼
알찬 경남교육 소식을 전하는
'미쁘' 아이좋아 경남교육이 되겠습니다.



CONTENTS

Vol.81 2023년 10월 호

발행일
2023년 10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278-1784

편집인
홍보담당관 이종섭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원 전영부·주무관 채선영·김아경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주)큰그림

경남교육, 미래를 만나다

- 04 특집 기획**
이달의 경남교육 주요 정책
미래 창의 인재를 키우는 힘
경남교육청 발명교육
- 08 요즘 아이, 별별 꿈**
농부를 꿈꾸는 19세 소년
산청고등학교 백영빈
- 12 경남교육가족을 만나다**
양산보광교
독서토론 동아리 (보광신기)
- 16 학교 변신은 무죄**
적정규모학교
고성 소가야중학교
- 20 열정을 만나는 시간**
김해합성초등학교 한국어학급
김영미 선생님



경남교육, 재미를 만나다

- 24 방구석 도서관**
- 26 경남교육캘린더**
- 28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가을 마중 나가는 여행
- 32 즐겁지 아니한家**
작은 학교 큰 행복
다안이네 거창살이
- 36 우리말 돌보기**
- 38 학교폭력 예방 웹툰**

경남교육, 정보를 만나다

- 40 진로진학 나침판**
- 42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 44 경남교육뉴스**
- 46 의정소식**
- 48 도정소식**
- 50 독자기고**
- 51 독자퀴즈**





발명교육, 미래창의인재를 키우는 힘

경상남도교육청 2년 연속 발명교육
최우수 교육청 선정



발명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Thomas A. Edison)은 창의력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서 출발해 만 번 이상의 실험을 진행했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놀림에도 도전 정신과 의지를 꺾지 않으며 결국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에디슨의 일화에서 우리는 발명이 천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명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발명교육이란 기존의 학년·교과 간 경계로 학생들을 가두지 않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등 다양한 교과목 사이에서 융합을 통해 확산적·수렴적 사고 훈련이 가능한 교육입니다. 즉 발명교육은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닌, 창의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발명교육에 힘을 쏟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래창의인재를 키우는 힘, 경남교육청의 발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발명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역의 균형 잡힌 발명교육을 위해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육센터에서는 창의발명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을 통해 발명 분야에 흥미와 창의적 잠재력을 갖춘 창의 인재를 조기 발굴하려고 합니다.

- 1 경상남도 총 20개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 2 기본교육과정 (초·중·고급)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발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3 1일 발명교실, 가족발명교실, 발명체험교실, 나눔발명교육 등 기타 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4 산·학·연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 5 지역별 IP강소기업, 지역특화 기업·기관의 교육기부 활동으로 발명교육센터 교육생에게 창의적인 체험발명교육을 제공합니다.

발명교육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센터별로 주말과 방학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프로젝트형(3D프린터, 드론, 디자인싱킹 등) 창의발명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교과연계형, 방과후교육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센터별 프로그램은 각 센터별 시기가 다르며 교육지원청과 운영교의 누리집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경남의 발명교육기관을 소개합니다

★ 기관 | 경남과학교육원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178-35
· 055-760-8118

● 센터 | 19개 경남발명교육센터

- 1 합천초등학교 055-933-2040
- 2 함안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055-583-2395
- 3 하동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055-882-3034
- 4 통영초등학교 055-645-2311
- 5 창원사파고등학교 055-269-5726
- 6 창원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055-551-9375
- 7 창녕초등학교 055-532-1823
- 8 진주제일중학교 055-748-1934
- 9 양산발명교육센터 055-388-8376
- 10 산청초등학교 055-973-5681
- 11 사천교육지원청 055-963-3722
- 12 밀성초등학교 055-354-2144
- 13 마산여자중학교 055-246-2611
- 14 남해초등학교 055-863-0019
- 15 김해경원고등학교 055-310-3200
- 16 삼락메이커아지트 02-3459-2753
- 17 계룡초등학교 055-637-5001
- 18 경남발명교육센터 055-760-8113
- 19 거창초등학교 055-808-8036



무한상상실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산을 독려하고, 상상력을 촉진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내에서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한상상실이란? 학교 내에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이 언제나 쉽게 찾아와 상상력과 창의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무한상상실에서는 융합(STEAM), 진로, 메이커 등 자율 동아리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학교내 무한상상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1 발명메이커 수업
02 창의 목공 수업
03 첨단 목공 수업
04 피지컬컴퓨팅 수업
사진출처 :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발명교육센터와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나 읍면지역 학교는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을 활용합니다.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발명교육을 편성하고,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운영하는 '교과연계형', 정규 수업시간 외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을 운영하는 '방과후 교육형', 발명교육센터가 권역 내 2개 이상의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발명교육 캠프'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2년 연속 한국발명진흥회 선정 '발명교육 최우수 교육청'

경남교육청은 '제36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제25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함께 받으면서 2년 연속 발명교육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및 전국교원발명품 경진대회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명 대회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청소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선생님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담긴 발명품을 전시하고 시상합니다.



경남교육청 최근 발명 대회 입상 실적

2022

- 제3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국무총리상 윤지홍, 금 16명·은 11명 등 총 85명 수상
- 제24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 1명

2023

- 제36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 김형우, 국무총리상 윤하진, 금 18명·은 12명 등 91명 수상
- 제25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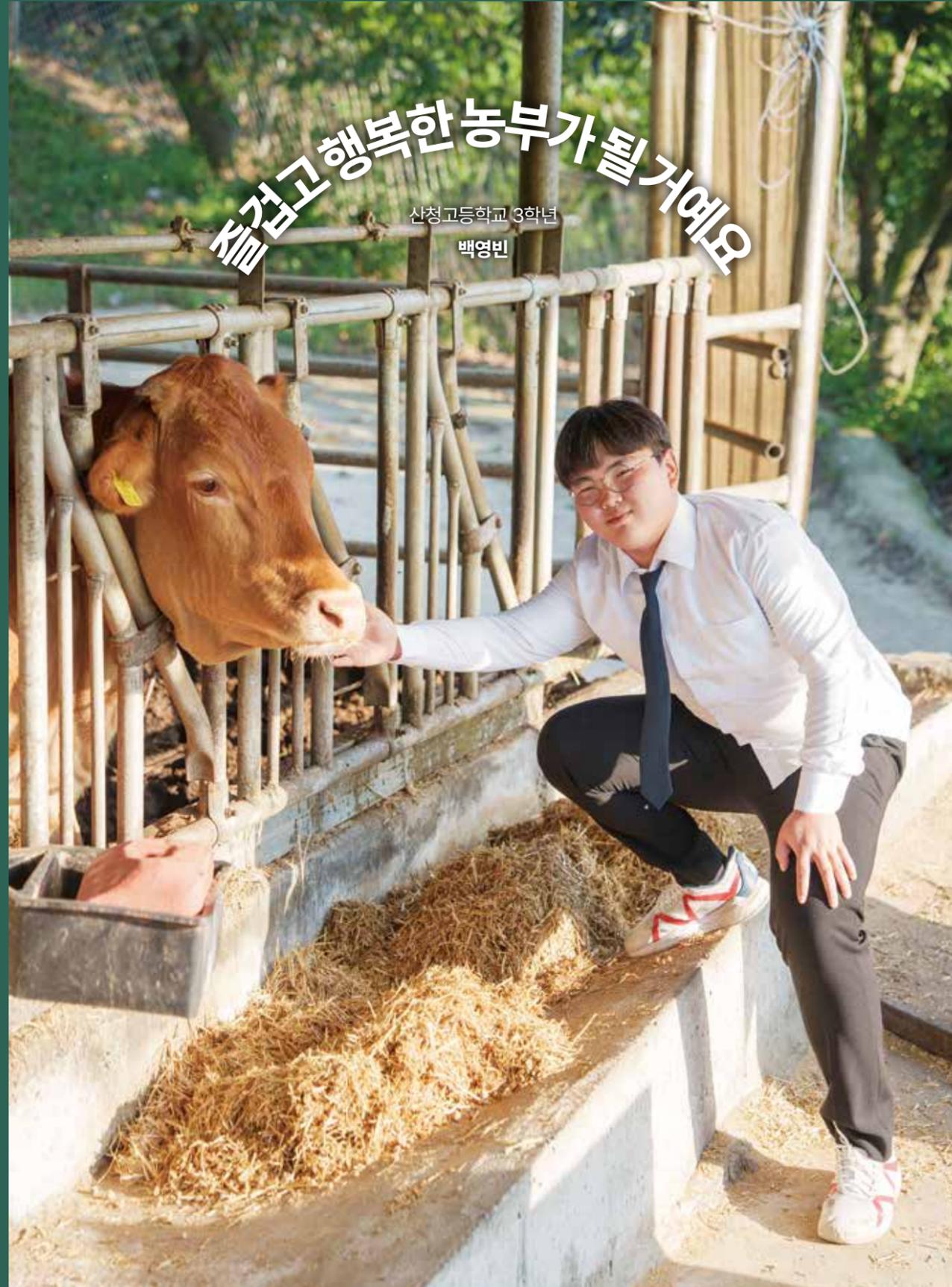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특허에 대한 의지

경남교육청은 수학문화체험관, SW체험실, 미래교육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특허로 관리하고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에서는 디자인권 14건, 특허권 12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남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교육특허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해분성고등학교 발명 동아리

지난 8월 5일, 김해분성고등학교 과학동아리 에어크래프트 학생들이 '우주 풍선 프로젝트'에 도전하기 위해 헬륨가스가 담긴 1천 200g 크기의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풍선 아래에는 카메라와 대기압, 오존, 자외선을 확인하는 각종 센서와 GPS가 스티로폼 박스에 부착된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이 쏘아올린 풍선은 성층권까지 도달해 거제도과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의 모습을 뚜렷하게 기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학생들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띄워 올린 카메라와 센서들을 회수해 측정 결과물을 얻어야 하기에 난이도가 다소 높은 프로젝트였는데요. 다음엔 우리 학생들이 또 어떤 놀라운 도전을 보여줄 지 기대가 됩니다.

분성고등학교 과학동아리 에어크래프트 우주 풍선 프로젝트 영상



세금
행복한 농부가 될 거예요

산청고등학교 3학년
 백영빈

**380m 고지. 별이 좋고 땅심이 좋아
 모든 작물이 튼실하게 자라는 마을.
 산청군 차황면에는 열아홉 살 농부 백영빈 군이 산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소 축사를 살피고 학교에 가선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동안
 농업과 축산업 공부에 열중한다.
 하교 후엔 논밭일하고 소 돌보고 동네 할머니들의
 부탁이 있으면 언제나 달려간다는 영빈 군.**

**따사로운 가을별 아래,
 차황면의 논밭이 익어가는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농부가 되겠다는
 영빈 군의 꿈도 무럭무럭 자란다.
 오늘은 그 꿈을 만나보자.**

01-03 올해 6월 방영된 인간극장 <열일곱 일꾼의 탄생> 속 영빈군



**영빈 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농부의 꿈을 정했다고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서 텃밭 가꾸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감자, 상추, 오이 등을 심고 수확해서 다 같이 먹곤 했는데 그 과정이 재밌었어요. 그 전까지는 뚜렷한 꿈이 없었는데 농사가 제 적성에 맞는 일 같았어요. 마침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꿈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부모님께서
 꿈을 반대하셨다고요.**

☞ 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반대가 심하셨어요. 부모님처럼 제가 고생할까 봐 걱정되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일이 정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꾀꾀하게 두 분의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중학교 3학년 때 허락을 해주셨어요.

올해 초 영빈 군의 축사가 생겼던데요?

☞ 네. 부모님께서 농사 뿐 아니라 소 축사 운영을 함께하고 계세요. 큰 축사는 집과 떨어진 곳에 있고, 집 뒤편에 안 쓰는 작은 축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작은 축사에서 일을 시작해 소를 하나씩 늘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이 축사를 수리해서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주셨어요. 처음엔 소 여섯 마리였는데 최근에 두 마리가 늘었고요.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소의 성장도 달라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키우고 있어요.

학교 다니라, 농사지으라, 소 들보라 하루가 바쁘겠어요. 영빈 군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 보통 오전 5시 30분에서 6시에 일어나고요. 7시쯤 축사에 들러서 간밤에 소들이 잘 잤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살펴봐요. 그리고 학교에 갔다가 하교하면 논일하고 동네 할머니들 부탁을 들어드려요. 눈에 물이 새어나온다 하면 막아

주러 가고, 고추에 병들었다 하면 살펴보러 가고요. 주말에는 더 이르게 일어나서 농사일과 축사 일을 본격적으로 하죠. 아직 벌이 뜨거운 오후 한두 시쯤에는 마을회관에 가서 할머니들과 수다 떨면서 놀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일을 하고요. 할머니들과 놀면 뭐가 재미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행복이에요.

영빈 군의 학교 생활도 궁금해요. 고3이면 친구들은 한창 수능을 준비할 때네요.

☞ 저도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졸업 후 현장에서 바로 실무 경험을 쌓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요. 친구들이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저에게 필요한 농업, 축산업 공부에 더 마음을 쏟고 있죠. 굴착기 자격증과 드론 1종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6차 산업(농촌 융복합 산업)에는 드론이 필수적이거든요. 현재 담임 선생님이 제가 1학년 때부터 줄곧 답임을 맡고 계셔서 저의 꿈을 잘 이해해주세요. 힘든 건 없냐, 요즘엔 어떤 농사를 짓냐 물어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세요.



아버지가 스승님이자 선배님이겠네요. 어떤 노하우를 배우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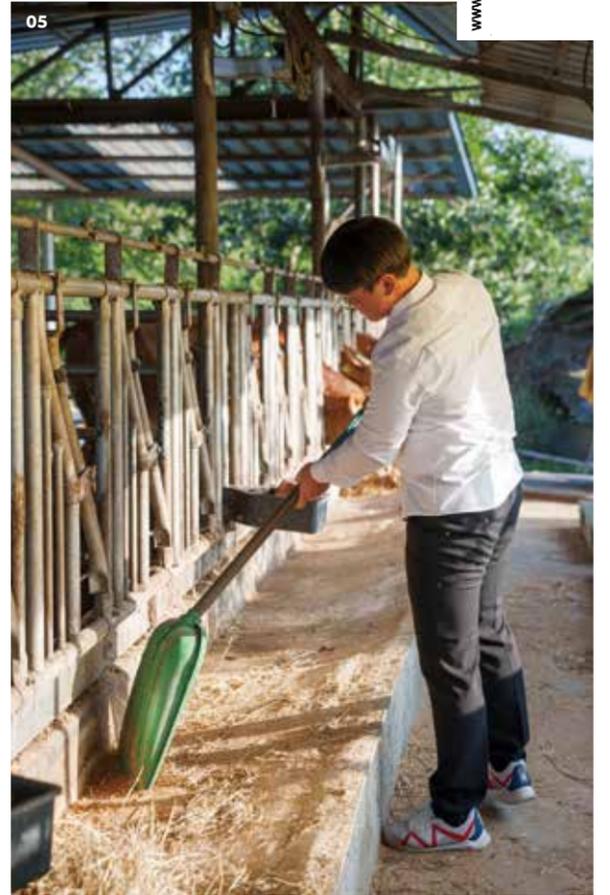
☞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세요. 그 부지런함을 본받아야겠다고 늘 생각해요. 그리고 옆에서 일을 도우면서 하나씩 아버지의 노하우를 습득하죠.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엔 축사에 라디오를 틀어놔요. 소는 겁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계속 사람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평소에 소와 대화도 자주 나눕니다. 최근에는 아버지께서 오히려 저에게 의견을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관련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더 큰 규모로 축사를 운영하는 삼촌들을 찾아가 조언도 듣고요. 아버지의 경험과 저의 지식을 결합해서 농법과 축사 운영에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또래 친구도 없고 편의점도 하나 없는 동네가 심심하진 않나요?

☞ 심심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저는 우리 동네가 좋아요. 소가 크는 걸 보고, 논밭에 심은 걸 수확하는 것도 재미있고 매일 달라지는 하늘을 보는 것도 좋고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행복해요. 차황면이 산청군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소멸될 거예요. 제가 자라는 동안에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동네가 점점 비어간다는 걸 느껴요. 그 점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 동네를 지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께 말씀드려요. 제가 성공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요.

영빈 군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졸업 후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쌓고, 공부도 많이 해서 차황면에도 6차 산업에 걸맞은 스마트한 농업을 도입하고 싶어요. 생산뿐 아니라 유통, 판매까지도 제 힘으로 해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즐겁게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04 영빈 군의 축사. 매일 소와 교감을 나눈다.
05 밥을 주고 축사를 청소하는 것도 영빈 군의 일
06 영빈 군의 밭에서 바라본 동네 풍경



01

우리를 성장시킨

독서토론의 힘

‘보광신기’는 보광의 빛나는 별들이라는 뜻을 지녔다. 2015년 강성영 선생님이 보광중학교 재직 중에 결성한 독서토론 동아리를 2019년 보광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며 그대로 이어온 것이다.

지도교사 강성영 “학생들과 국어 시간에 홍길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적 있어요. 홍길동은 의로운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도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모두 홍길동의 행동을 옳다고만 대답하는 거예요. 문학은 암기가 아니라 충분히 감상하고 생각을 넓혀야 하는데 문학에서도 정답을 찾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왜?’라고 묻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요.”

‘보광신기’는 현재 10명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다.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한 학기에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한다. 학생들은 문학, 인문, 과학 등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함께 읽고 선생님이 던진 ‘왜?’라는 질문에 각자의 생각을 토론 형식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과학 도서를 읽고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관해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독서와 논리적인 말하기 훈련이 필요하다. 책보다 인터넷이 훨씬 익숙한 세대인 ‘보광신기’ 학생들은 왜 독서토론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스스로를 어떻게 성장시켰을까.

독서는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독서토론 동아리 ‘보광신기’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짐에 따라 독서량이 줄어들고 문해력도 낮아지는 요즘. 독서가 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일이 어떻게 고유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지난 7월, 전국 380여 개 학교 10만여 명 학생이 참여한 ‘제22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양산보광고등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보광신기’ 학생들이 그 주인공. 학생들이 책을 읽고 “왜?”라고 질문하도록 돕는 강성영 지도교사와 책 속에서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윤도훈, 고다영, 신현준 학생을 만나보았다.

* ‘보광신기’의 2학년 백한나, 2학년 정보권·김채은, 1학년 김동현 학생도 ‘제22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 개인전에서 수상하였다.

01 왼쪽부터 지도교사 강성영, 2학년 윤도훈, 1학년 신현준, 1학년 고다영 학생

윤도훈 “평소에 책을 읽긴 읽는데 스스로 독해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서 독서 토론을 통해 극복하고 싶었어요. 덕분에 책을 읽고 생각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제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독서 토론은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뿐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늘려준다. 다양성이 확장되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길러주는 것이다.



경남교육, 미래를 만나다

경남교육가족을 만나다

고다영 “토론을 통해서 같은 주제라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와 반대 의견일지라도 배울 만한 점이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일 때도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대회

‘보광신기’는 2023년 <제22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에 참가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주제는 ‘디지털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였는데, 강성영 지도교사와 학생들은 대회를 앞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 시간을 가졌다.

지도교사 강성영 “대상 도서 활용 능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도서 두 권과 윤리와 사상, 통합 사회, 생활 윤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같이 고민하고, 계속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평소엔 수업을 마치고 밤 열 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준비하고, 새벽 두 시까지 온라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대회 주제는 미리 공유되지만 어느 팀이 찬성과 반대 쪽에서지는 현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회 참가 학생들은 찬반 의견을 뒷받침하는 발제문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 때문에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고를 넓히고 균형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 대회 당시 ‘보광신기’ 학생들이 펼친 의견은 찬성. 학생들은 각각 디지털 기술 발달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충족시키는 디지털 기술의 역할,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하기 위한 시민의식 성장의 필요 등을 근거로 상대 팀을 설득했다.

윤도훈 “800여 명 관중 앞에서 토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엔 엄청 떨렸어요. 상을 받을 때도 정말 우리가 받게 맞나 얼떨떨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지지하며 성장한다

그렇다면 ‘보광신기’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회 우승의 비결은 무엇일까.

고다영 “주제에 대해 깊고 넓게 공부한 덕분 같아요. 참고 도서뿐 아니라 선생님이 찾아주시는 여러 자료도 꼼꼼히 읽고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신현준 “단합력 같아요. 대회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처음 동아리를 시작할 땐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던 사이였는데 대회 전날엔 끈끈한 사이가 됐단 걸 느꼈어요. 우정을 바탕으로 서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성영 지도교사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우승 비결로 꼽았다.

지도교사 강성영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보광신기’의 고3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학업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과 응원을 해줬습니다. 개인전으로 참가한 학생들도 함께 아이디어를 보태줬고요. 실제로 단체전에 참가한 학생은 세 명이지만 준비는 열 명의 학생이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발제 내용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었고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보광신기’ 학생들은 우승 혜택으로 2024년 1월 미얀마로 연수를 떠난다. 내년엔 고3이 되는 윤도훈 학생은 올해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후배를 돕는 선배 역할을, 고다영·신현준 학생은 다시 한번 대회 우승에 도전할 계획이다. 함께 일어나가는 책만큼,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의지하는 시간만큼 ‘보광신기’ 학생들은 얼마나 넓어지고 또 깊어질까.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10월엔 ‘보광신기’ 학생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



올 가을, 우리 아이를 독서의 즐거움에 빠트릴 건강한 독서습관 비법!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하는 것으로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식사 뿐만 아니라 독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명사들의 맛있고 건강한 책 읽는 습관을 배워봅시다.

◆ **다양한 분야의 풍성한 독서 식단 • 방탄소년단 RM**
만능 아티스트인 RM의 성공 비결은 ‘남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독서량’이라고 합니다. 편식하지 않는 식습관처럼 예세이, 소설, 인문·사회, 고전에서 최근 베스트셀러까지 다양한 독서 식단은 어떠세요?

◆ **끼니를 거르지 않는 규칙적인 독서 • 워렌버핏**
“내가 실수를 최소화하는 비결은 매일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뛰어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꾸준한 독서를 통한 생각하는 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3끼를 꼭 먹는 것처럼 규칙적인 독서 습관을 만들어볼까요?

◆ **여유로운 독서 시간 • 빌 게이츠**
허겁지겁 먹는 패스트푸드보다 여유로운 정식코스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매일밤 한시간 정도 책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메모를 하며 책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집중하는 독서법, 어떠세요?

◆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메뉴 • 아이유**
넛다하면 차트를 석권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아이유는 <데미안> 등 고전을 즐겨 읽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가 고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인생 그 자체가 주는 의미와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보광신기’ 학생들이 추천하는 책



2학년 윤도훈 학생



김혜남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1학년 고다영 학생



손현주 <가짜 모범생>



1학년 신현준 학생



이아령 <너 어떻게 살래>



적정규모학교를 아시나요?

고성 소가야중학교

• 적정규모학교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를 통합해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 수, 교직원 수 등 적정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재정 절감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작은학교' 지원정책에 공간혁신, 생태환경교육 개념을 더 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곧 학생 수 감소를 뜻한다. 더불어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남 초·중·고 학생 수는 2022년 대비 2027년에는 9.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학교 학생 수는 같은 기간에 23.1%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일방적으로 학교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구도심과 농촌 공동화에도 대응하고자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데 나섰다.

그중 개교 8년 차를 맞은 고성 소가야중학교에 다녀왔다.

3개 중학교 통합해 만든 소가야중학교

앞으로는 자란만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갈모봉산이 우뚝 솟은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화려하게 핀 백일홍 꽃길을 따라 한적한 길을 달려가면 개교 8년 차 고성 소가야중학교를 만날 수 있다.

소가야중학교는 2016년 3월, 고성군 소규모 중학교(전교생 60명 이하)인 하일중, 상리중, 고성중 삼산분교 세 곳을 통합, 신설한 기숙형 공립중학교이자 적정규모학교이다. 현재 전교생 수는 104명. 고성군 상리·삼산·하일·하이면 등 4개 면 지역 거주자, 경남도내 시 중에서도 동 지역 거주자라면 입학할 수 있다. 매년 20~40명 사이의 입학생을 맞이하다가 2023년에는 47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며 더욱 학교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박형준 교무부장 “2023년 신입생이 늘어난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학교의 좋은 점이 나날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 또 태권도 전공 등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형 학교가 갖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 지역 학생들과 어울려 사는 학교

소가야중학교는 운동장을 기준으로 정면으로는 학사동이, 왼쪽으로는 기숙사동이 위치해 있다. 기숙사가 있는 만큼 학생들의 일주일 시간표도 조금 남다르다. 월요일 아침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한 뒤 학교에서 월~금요일 일과를 보내고, 금요일 오후 통학버스를 타고 하교한다. 통학버스는 고성관 내는 물론 통영, 거제, 창원까지 닿는다.

소가야중학교에서 전교 회장을 맡고 있는 3학년 최은관 학생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살고 있다. 최은관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는 고성군 상리·삼산·하일·하이면 등 4개 면 지역 학생만 입학할 수 있었지만 이후 입학 가능 권역이

넓어지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최은관(3학년, 전교 회장) “저희가 오기 전에는 원래 고성 지역 학생들만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 학생도 받다 보니까 여러 지역 친구들의 문화가 섞인다는 점이 좋고요.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까 친밀감을 형성하기 쉽다는 점도 장점 같아요. 장점이자 단점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조용하다는 것? 도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학교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적정규모학교는 교육 과정, 학교 운영, 재정 등을 두루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기본은 하는 학교’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소가야중학교는 학생 참여형 수업,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윈드오케스트라’이다.



4시경 본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방과후수업 1·2교시에는 주로 교과 수업을 듣고 3·4교시에는 예술·체육 방과후수업을 듣는다. 소가야중학교의 특색 교육은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악기 지급부터 강습까지 모든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1인 1악기 연주’ 능력을 갖추고 소리로 협업하는 법을 배운다. 특수반 학생들까지 포함해 전교생 모두가 함께하는 윈드오케스트라는 지난해 제71회 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 금상, 대한민국합주경연대회 금상에 이어 올해는 제6회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은상 수상을 이뤄내기도 했다.

거제에서 고성행을 택한 김미현 학생은 오케스트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라는 점에 이끌려 소가야중학교를 선택했다.

김미현(3학년, 체육부장) “제가 음악과 춤에 관심이 많은데, 소가야중학교가 대외 행사를 많이 한다고 들어서 마음이 끌렸어요. 오케스트라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학교에서 다른 행사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특히 현장학습이나 진로체험을 자주 가는데, 최근에는 야구 보러 창원NC파크에 다녀온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미술 선생님 주도로 전교생이 함께 다녀왔는데 선생님들 모두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계셔서 든든해요.”

지역 안전망 역할을 하는 강한 학교

학생 학습권 보장,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시대가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부담과 보람도 크다.

박형준(교무부장) “기숙형 학교다 보니까 사실 다른 학교보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24시간 가동되는 학교이고, 사감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와 별도로 선생님들도 남여 기숙사에 각각 매일 한 명씩 남아있어야 하고요. 업무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학생들과 더욱 끈끈해지는 면도 분명 있습니다.”

고인순(인성부장) “학생들의 학습권과 사회권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농산어촌 지역이다 보니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꽤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물론이고 세 끼 식사와 잠자리, 또 교육 활동까지 지원되니 가정에서도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학생들에게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학교라는 점이 보람 있습니다.”



01-02 소가야중학교 특색교육이자 경남의 자랑, 윈드오케스트라
03 2023년 소가야중 교육공동체 어울림마당
04 교실 밖에서 진행한 미술 수업

적정규모학교(기숙형거점중학교) 현황

- 밀양 미리벌중학교(2015. 3 개교)**
통폐합 대상학교명 • 밀양중청도분교장, 초동중, 상남중, 상동중(2018)
지원 가능 학교 • 경남 시의 동지역 소재 초등학교, 창원 북면지역 북면초, 무동초, 감계초, 김해 진영읍 소재 초등학교 미리벌중학교 내 초등학교
- 고성 소가야중(2016. 3 개교)**
통폐합 대상학교명 • 하일중, 상리중, 고성중심산분교장
지원 가능 학교 • 경남 시의 동지역 소재 초등학교, 소가야중학교 내 초등학교
- 남해 꽃내중(2019. 3 개교)**
통폐합 대상학교명 • 고현중, 남수중, 물건중
지원 가능 학교 • 경남 시의 동지역 소재 초등학교, 꽃내중학교 내 초등학교
- 하동 한다사중(2016. 3 개교)**
통폐합 대상학교명 • 양보중, 황천중, 옥중중북천분교장
지원 가능 학교 • 경남 시의 동지역 소재 초등학교, 한다사중학교 내 초등학교
- 산청 산청중(2018. 3 개교)**
통폐합 대상학교명 • 산청중, 산청중차황분교장, 생초중, 경호중
지원 가능 학교 • 산청중학교 내 초등학교
- 거창 거창덕유중(2016. 3 개교)**
통폐합 대상학교명 • 마리중, 위천중, 거창중심원분교장(2020)
지원 가능 학교 • 경남 시의 동지역 소재 초등학교, 거창덕유중학교 내 초등학교

김해시는 도내 지자체 인구수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다.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특별(한국어)학급은 도내 전체 32학급 중 21학급(65.6%)이 김해 지역 유·초중고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2017년부터 김해합성초 한국어 학급을 담당 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다문화 교육에 힘써온 사람이 있다. 올해로 교직 생활 33년차, 김영미 선생님이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다문화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를 움직이게 하는 열정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김해 다문화교육 특구’* 운영 이 시작된 9월, 작은 세계와 같은 한국어학급 교실의 문을 열어보았다.

*김해 다문화교육 특구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연계하여 다문화 학생과 비(非)다문화 학생의 전인적 통합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김해 지역의 특색 에 맞는 다문화교육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자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 학생들의 영원한 선생님

김해합성초등학교 한국어학급 담당 김영미 선생님



KIM YOUNG MI

한국어학급은 하나의 작은 세계

김해합성초는 전교생의 57%가 다문화 학생이다. 러시아, 카 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 총 16개국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다문화 학생 중 85% 이상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다.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작은 세계인 셈이다. 김해합성초는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 학교 생활 적 응을 돕기 위해 2016년 한국어학급 1개 반을 개설(2019년 2 개 반으로 증설)했다. 김영미 선생님은 2017년부터 한국어학 급 담당 교사를 맡았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는 1학년 담임을 맡았어요. 제 반에 다문화 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할 줄 아는 한국어가 ‘한국어 를 몰라요.’뿐이었죠. 그동안 베테랑 교사라고 자부했는데 아 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그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다 문화 학생들을 한 그룹으로 모아서 ㄱ, ㄴ, ㄷ부터 가르치고 다 른 학생들은 1학년 교과 수업을 동시에 진행한 거죠. 정규 수 업만으로는 부족해서 방과후에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 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생겨났죠.”

현재 한국어학급은 40여 명의 학생이 함께하고 있다. 원적반 에서 정규 수업 4시간을 듣고 한국어학급에서 2시간 수업을 듣는다. 수업은 이중언어 강사를 포함한 6명의 강사와 담당 교사 2명이 맡는다. 학생들의 모국어와 문화가 모두 달라 수 업 지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김영미 선생님은 시간이 걸리더 라도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점도 선생님이겐 큰 장벽이 되지 않는다. 서로 진심으로 통하 고자 하면 장벽은 언제든 낮아질 수 있다.





01

66
 다문화 학생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면 그들이 경험한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99



02

- 01 방과후 한국어학급에서 보충 공부를 하는 학생
- 02 선생님께 공부를 가르쳐달라며 찾아온 졸업생들
- 03 아이들의 성장에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선생님
- 04 차근차근 한국어와 수학을 배우고 있다

“한국어를 모르는 채 교과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죠. 그런 위기를 맞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해나가려고 해요. 조금씩 나아지며 느끼는 성취감, 그를 통한 자기 효능감을 잃지 않는 것이 학습을 계속하는 힘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일. 그게 교사인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충분한 가능성을 믿는 교육

김해합성초에서 한국어학급이 문을 연 지 7년 차. 초반에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했다면 최근에는 모국어와 함께 학습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러시아어 선생님을 초빙해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같은 수준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중 언어 습득은 그 자체로 학생들의 강점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일도 한국어학급의 중요한 역할이다. 심리 상담, 학부모 상담뿐 아니라 진로 교육에도 힘쓴다. 올해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부울경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도록 도왔다. 다국적팀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각 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개발해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외부 활동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아이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 고립감, 학습 격차를 채울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죠.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 선배를 초청하는 등 아이들에게 롤모델을 보여주는 노력도 계속해요. 그들을 통해 긍정적인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요.”

김영미 선생님은 말한다. 처음엔 다문화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이 그저 안타까움이었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처음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이 너무 커요. 다문화 학생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면 그들이 경험한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



03



04



고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무역 중심 사회인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죠. 그러니 이 아이들의 장점에 주목하자, 더 잘 키워내보자 다짐하죠.”

햇볕과 바람, 빗방울 같은 선생님

평일 오후 4시. 인터뷰 도중 인근 중학교로 진학한 졸업생 다섯 명이 한국어학급 교실로 찾아왔다. 그중엔 김영미 선생님이 1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학생도 있다. 중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선생님의 흔쾌한 수락과 함께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번, 하교 후 찾아와 서너 시간씩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간다.

“한창 놀고 싶고 예민한 시기인데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너무 기특해요. 제 개인 시간을 쓰는 일이지만,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힘들어도 그만큼 수백 배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열정적으로 다문화 교육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건 학교의 지지 덕분이라고 김영미 선생님은 말한다.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장 선생님과 동료 교사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김해합성초는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다문화 교육을 운영 중이다. 2021년에는 다문화 학생 통합성장 지원 영역 연구학교(교육부 선정, 2년간 운영)로 지정됐다.

“초반에는 다문화 학생과 보호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제가 직접 두 발로 뛰어서 알아보고, 제가 가진 것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돼서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었죠. 2019년 이전엔 외국인 학생은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지역 병원의 도움으로 학교 내에서 다문화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가 열려요. 그동안 노력한 덕분에 우리 학교가 다문화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이 되고 있지 않나 뿌듯한 마음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남은 교직 생활 동안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일이다.

“제가 7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떠나더라도 한국어학급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다문화교육에 열정적인 전문 인력이 더 많이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김영미 선생님은 다문화 학생들을 추운 겨울 나무의 성장과 비유했다. 여름에 나무는 빠르게 성장하는 대신 무르지만, 겨울에는 느린 만큼 단단해진다. 것처럼 이제 막 한국어를 익히기 시작한 아이들의 성장이 지금은 다소 더딜지라도 단단한 나이트를 만들며 고유한 개성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할 거라 믿는다. 그리고 나무의 성장에 필요한 햇볕과 바람, 비를 떠올려본다. 아이들에게 김영미 선생님은 따뜻한 햇볕이자 바람, 자신들을 자라게 하는 빗방울로 기억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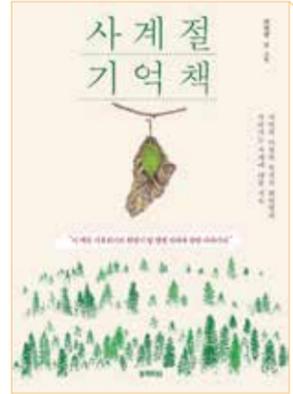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나쁜 뉴스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겐 더 많은 좋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이야기,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을 넓혀주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좋은 책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책들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교육리더가 읽으면 좋은 책



사계절 기억책

글·그림 최원형 출판사 블랙피쉬 출간 2023 쪽수 320쪽

기후 위기의 희망이 될 생명 연대에 관한 이야기

집중 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사, 지구촌 곳곳에서 꺼지지 않는 산불 같은 이상 기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연의 숨소리에 귀 기울인 최원형 작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우리 곁의 사계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다. 소박한 그림과 함께 들려주는 이야기는 따뜻하고 세심한 시선의 관찰자의 존재에 대한 진심이 깃들어 있다.

책 속 한 구절 새를 알고 나면 새가 동지를 트는 나무와 숲이 귀하게 느껴진다. 새끼 새를 기르는 과정을 보면서 곤충을 비롯한 온갖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진리를 발견하기도 한다.(11쪽)

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나와 시험능력주의

글 구정은 그림 유수정 출판사 너머학교 출간 2023 쪽수 136쪽

시험 잘 보는 게 능력의 전부는 아니야!

수능의 영향력은 두말하면 입이 아프다. 성적이 곧 성과인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서열과 줄 세우기가 이루어진다. 승자 그룹에 속하기 위해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공감과 연민, 연대 의식은 희미해져 간다. 시험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들이 존중받고 꽃피우는, 다채로워서 아름다운 사회를 그리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책 속 한 구절 늘 뭔가를 평가받으며 성장하다 보면 평가를 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지요. 서열을 정하는 게 버릇이 되면 차별에 익숙해지고요. 서열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면 공감과 연민과 연대 의식이 사라집니다.(79쪽)

중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소년범죄 살인해도 될까요?

글 김성호 출판사 천개의바람 출간 2023 쪽수 168쪽

경계에 선 소년법

소년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후끈 달아올랐다. 기존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으로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책은 소년법과 촉법소년에 대한 사례와 쟁점을 소개하며 소년법의 체계와 역사, 법의 역할과 기능을 되짚어 보며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게 한다.

책 속 한 구절 환경은 어른들이 제공한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소년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기성세대와 공동체, 사회가 촉법소년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해요.(158쪽)

초등 고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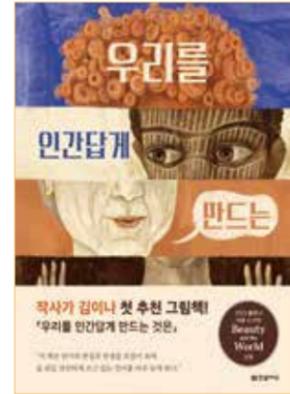
글 이선주 그림 국민지 출판사 주니어RHK 출간 2023 쪽수 132쪽

매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른 나의 이웃 이야기

할머니, 아빠와 함께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열두 살 태구는 이웃들을 관찰하는 게 취미이다. 어느 날부터 810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810호 앞을 지날 때마다 오래된 된장찌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책을 읽다 보면 익살스러운 새우 눈 일러스트와 폼 하고 웃게 하는 대사를 만날 것이다. 태구처럼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봐주는 이웃이 되어보자!

책 속 한 구절 나만큼 외로운 아이였다. "형도 심심하잖아. 그래서 사람들 관찰하는 거잖아." "나는 관찰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116쪽)

초등 저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글 빅터 D.O. 산토스 그림 안나 포를라티 출판사 한빛에듀 출간 2023 쪽수 40쪽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나는 언어입니다

주인공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어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정체에 대한 힌트가 하나씩 주어진다. 짧지만 많은 의미가 담긴 비유의 문장과 다채로운 삽화를 통해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듯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면 주인공의 정체가 곧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의 탄생부터 그 의미와 본질까지 폭넓게 다루며 언어란, 단지 소리를 옮겨 쓰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독특한 하나의 눈임을 알려준다.

책 속 한 구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내가 없었다면 수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같은 거요. (28쪽)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10

하늘연달
2023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SUN	MON	TUE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5: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 (~10.30.까지) 	<p>2 임시공휴일</p>	<p>3 개천절</p>
<p>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1:00 / 책오름자료실(1층)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구름빵> 	<p>9 한글날</p>	<p>10</p>
<p>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1:00 / 책오름자료실(1층)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돼지책> 	<p>16</p>	<p>17</p>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1:00 / 책오름자료실(1층)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별치의 꿈> ● 14: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책담 하루 수업>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7:00 / 진주체험분원 누리집 / 11월 토요일가족체험 사전신청기간 (~10.25.까지) 	<p>24</p>
<p>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1:00 / 책오름자료실(1층)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별치의 꿈> ● 10:00~12:00 / 1층 상상창작방 / 나만의 감성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오전) ● 14:00~16:00 / 1층 상상창작방 / 나만의 감성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오후) 	<p>30</p>	<p>31</p>

WED	THU	FRI	SAT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2:00 / 라라버스 / 라라&에듀봇 함께 놀아요 ● 15:00~17:00 / 라라버스 / 라라버스와 떠나는 무비데이 ● 16:30 / 해담 3층 해담홀, 해담 1층 해2 / 체험 <책 읽는 엄마 책과 크는 아이>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아따랑 나랑> ● 19:00~21:0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캘리와 함께 풀어보는> 인문정신과 행복한 삶>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0~11:10 / 라라버스 / 롤루라라(LALA) 영어 그림책 놀이 	<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17:00 / 북카페 / 마임과 함께하는 매직쇼 ● 10:00~12:00 / 1층 유아실 / 책이랑 놀이랑 <꽃등 만들기> ● 14:00~16:00 / 3층 시청각실 / 저자와 함께하는 강연 릴레이 <윤성근> ● 16:00~18:00 / 냉장서고 / 냉장서고 북토크 ● 14:00~15:30 / 3층 더배움2 강좌실 / 해바라기 썬케쳐 만들기 ● 15:00~15:40 / 3층 무학전당 / 공룡마술쇼 ● 14:00~16:00 / 1층 구암홀 / 명사의SEA簡 <최진영 강연 (소설이라는 선물)> ● 10:00~12:00, 13:00~15:00 / 강당 및 체험실 / 문화가 있는 과학체험 ● 10:00~12:00, 13:30~15:30 / 꿈담 4층 꿈1 / 체험 <원데이 클래스> ● 13: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 그림책 놀이> ● 14: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책동산(대지 수건걸이 만들기)>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2:00 / 라라버스 / 라라&에듀봇 함께 놀아요 ● 15:00~17:00 / 라라버스 / 라라버스와 떠나는 무비데이 ● 16:30 / 해담 3층 해담홀, 해담 1층 해2 / 체험 <책 읽는 엄마 책과 크는 아이>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아따랑 나랑> ● 19:00~21:0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캘리와 함께 풀어보는> 인문정신과 행복한 삶> ● 09:00~18:00 / 경남문학길탐방 / 박경리문학관 / 성인 	<p>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0~11:10 / 라라버스 / 롤루라라(LALA) 영어 그림책 놀이 	<p>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17:00 / 북카페 / 노트리오의 이야기 클래식 ● 11:30, 12:30 / 1층 유아자료실 / 책 읽어주세요 ● 14:00~16:00 / 3층 시청각실 / 아이랑 동화극장 <헨젤과 그레텔> ● 14:00~15:00 / 지혜마루 / 우카타가 <너버벌 퍼포먼스> ● 14:00~16:00 / 3층 무학전당 / 경남(문학)을 만나다 강연 <경남문학의 전통과 미래> ● 15:00~15:40 / 1층 놀이꽃밭 / 꼬꼬달이 왜이래? ● 11:00~11:40 / 2층 지혜마루 / 동화콘서트 <마리오네트 인형극 (제페토 할아버지의 목각 인형 이야기)>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힐링공연 <M.ost의 가을 판타지아> ● 09:30~12:00, 14:00~16:30 / 김해체험분원 / 가족 나들이 토요 체험 ● 10:00~11: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다문화 인식 개선 인형극> ● 10:00~12:00, 13:30~15:30 / 꿈담 4층 꿈1 / 체험 <원데이 클래스> ● 13: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 그림책 놀이>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2:00 / 라라버스 / 라라&에듀봇 함께 놀아요 ● 15:00~17:00 / 라라버스 / 라라버스와 떠나는 무비데이 ● 16:30 / 해담 3층 해담홀, 해담 1층 해2 / 체험 <책 읽는 엄마 책과 크는 아이>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아따랑 나랑> ● 19:00~21:0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캘리와 함께 풀어보는> 인문정신과 행복한 삶>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40~12:00 / 예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찾아가는 과학체험 ● 10:30~11:10 / 라라버스 / 롤루라라(LALA) 영어 그림책 놀이 	<p>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17:00 / 북카페 / 인형극 <우리 맹구가 달라졌어요> ● 11:00~12:00 / 지혜마루 / 별빛인형극 ● 14:00~15:00 / 지혜마루 / 김성진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 15:00~15:40 / 1층 세상을 볼 / 클래식 음악회 ● 10:00~12:00 / 1층 동화방 / 체험 <책 읽어주세요>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힐링공연 <가을에 띄우는 편지> ● 10:00~12:00, 13:30~15:30 / 꿈담 4층 꿈1 / 체험 <원데이 클래스> ● 13: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 그림책 놀이> ● 14: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경남을 배우다> ● 14:0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한 책 콘서트(한 도서관 한 책 '리보와 앤, 어윤정 작가 초청 강연)> ●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깊은 곳에서의 울림 / 최경은>
<p>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0~12:00 / 지혜마루 / 수요음악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10:00~12:00 / 라라버스 / 라라&에듀봇 함께 놀아요 ● 15:00~17:00 / 라라버스 / 라라버스와 떠나는 무비데이 ● 15:00 / 꿈담 1층 꿈담홀 / 영화 상영 <씨네 라이브러리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16:30 / 해담 3층 해담홀, 해담 1층 해2 / 체험 <책 읽는 엄마 책과 크는 아이>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0~16:00 / 2층 구지봉실 / 김해신중년크래스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아따랑 나랑> ● 19:00~21:0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캘리와 함께 풀어보는> 인문정신과 행복한 삶> 	<p>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2:00 / 1층 힐링방 / 원데이클래스 <메시지 캔들 만들기> ● 10:30~11:10 / 라라버스 / 롤루라라(LALA) 영어 그림책 놀이 ● 21:00 / 책담 / 신데렐라의 도서관 나들이 	<p>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16:30 / 북카페 / 정글in 그림책작가 <이은혜> 몸짓극 ● 14:00~16:00 / 3층 시청각실 / 지구를 살리는 도서관 <탄소 중립 탈출> ● 14:00~16:00 / 만장대실 / 가야유물과 메이커 스페이스의 만남 ● 14:00~16:00 / 지혜마루 / 김흔비 <먹는 기쁨, 나의 힐링푸드> ● 14:00~16:00 / 3층 무학전당 / 토요인문특강 <이희영 작가 강연>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재능기부공연 <YOUTH(민들레청소년관현악단)> ● 10: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동화인형극(뚜비 메가파워)> ● 10:00~12:00, 13:30~15:30 / 꿈담 4층 꿈1 / 체험 <원데이 클래스> ● 13: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 그림책 놀이> ● 14:0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STOP 1.5°C> ● 15:00 / 해담 1층 해2 / 공연 <그림책 1인극 공연>

체험프로그램 안내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초등 4, 5, 6, 11, 12, 13, 18, 19, 20, 25, 26, 27일
학생 체험 프로그램	중등 4, 5, 6, 17, 19, 27일
창원도서관	VR프로그램 4, 5, 7, 11, 12, 18, 19, 21, 25, 26일
체험 프로그램 안내	책담 2층 책고리 / 평일 10:00 / 주말 14:00
	샌드 크래프트 4, 5, 6, 17, 19, 27일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면의 한계로 일부 행사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이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찰나의 가을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까. ‘추억은 남지.’

가을 꽃구경을 나설 참이면 창녕군 ‘남지’의 유혹이 만만찮다. 매년 봄 유채 축제가 열리는 남지체육공원에 지금,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부터 백일홍, 메밀꽃까지 만개해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한 남지체육공원은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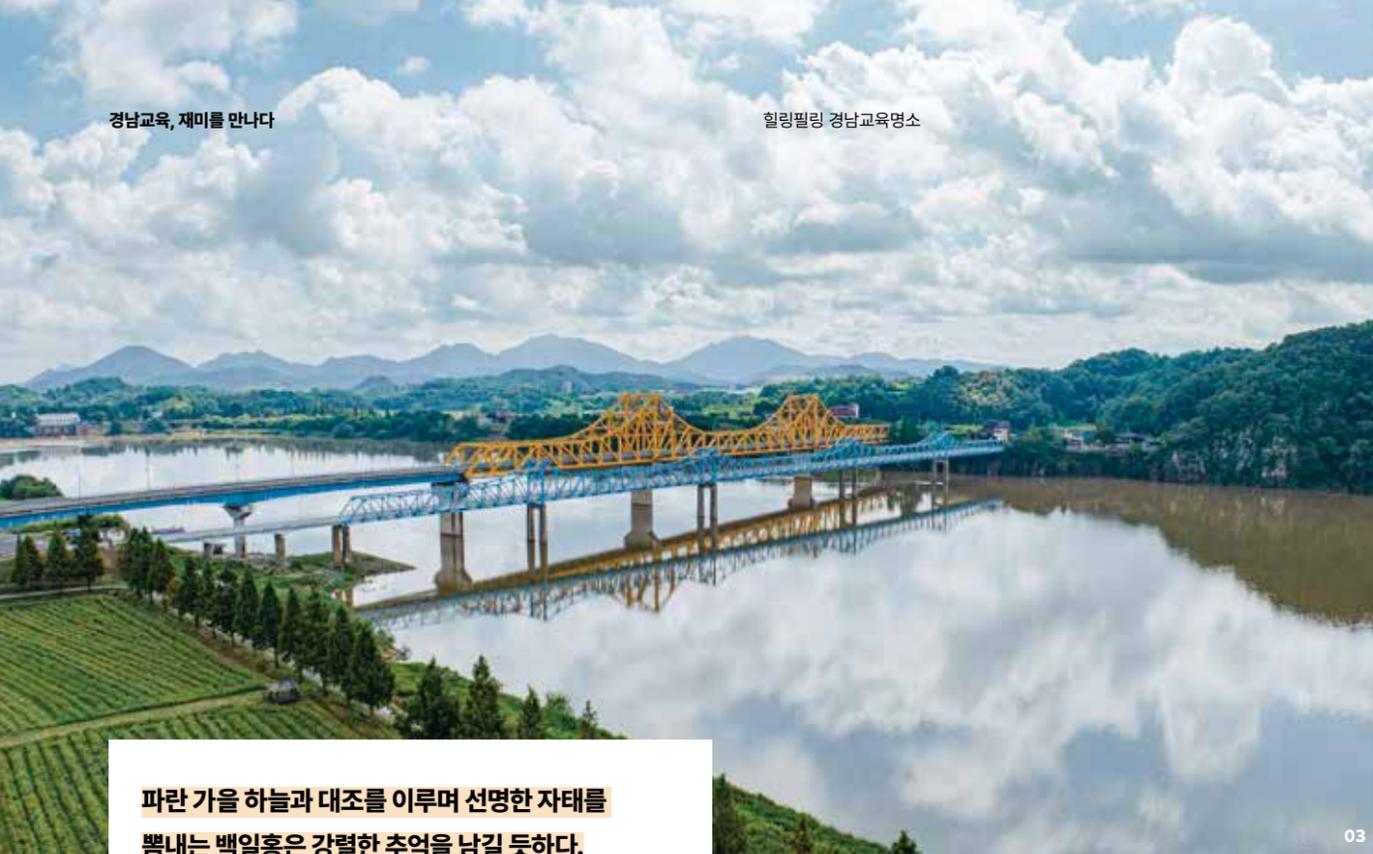
- 01 남지체육공원에 핀 코스모스
- 02 남지체육공원의 백일홍



‘저렇게 저마다 꽃을 피워내면서도 꽃들은 다른 꽃을 다치게 하는 법이 없다’고 노래한 이대흠 시인의 시구절이 절로 떠오를 정도로 코스모스와 백일홍, 메밀꽃은 자신의 자리에서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가을 하늘과 조화를 이룬 코스모스가 말 그대로 장관이다. 사실 코스모스는 초여름인 6월부터 핀다. 하지만 기온이 서늘해지고 해가 짧아지는 초가을쯤 많이 피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코스모스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라 할 수 있다. 아이 키만큼이나 훌쩍 자란 코스모스 속으로 ‘퐁덩’ 들어간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코스모스에 꼭 파묻혀 사진도 찍고 알록달록 꽃향기도 맡으며 제각기 추억을 만든다. 코스모스와 조화를 이룬, 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메밀꽃도 추억 보태기에 안성맞춤이다. 7월부터 피서 10월까지 개화하는 메밀꽃은 더 늦기 전에 눈에 가득 담아야 한다. 초록빛 줄기에 촘촘히 매달린 작고 하얀 메밀꽃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하늘거린다.

작가 이효석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달빛에 비친 메밀밭을 묘사하면서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글이 눈앞에 오롯이 펼쳐진다.



파란 가을 하늘과 대조를 이루며 선명한 자태를 뽐내는 백일홍은 강렬한 추억을 남길 듯하다.

‘백일 동안 붉게 핀다’하여 이름 붙여진 백일홍은 본래 보잘것없는 잡초였으나 독일 사람 진(Zinn)이 발견해 인도, 프랑스, 미국, 영국 화훼가들의 손을 거쳐 개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학자 이재위의 <물보(物譜)>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1800년 이전부터 관상용으로 재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뭔가를 귀하게 여기면 예뻐지는 것이 분명하다. 조형물과 포토존과 어울려 백일홍은 자꾸 사진을 찍게 만든다.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일제 강점기에 건설돼 6·25의 아픈 상흔을 간직한 남지철교(경남도 등록문화재 제145호), 강 건너 용화산의 깎아지른 절벽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어우러져 또 한 폭의 그림을 이룬다.

가을 깊숙이 들어가고 싶다면 우포늪으로 가보자.

질어지는 가을 속 시시각각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우포늪. 우리나라에서 파괴되지 않고 남은 자연 늪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큰 곳이다. 소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우포는 1억 400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

03



03 남지철교
04 우포생태교육원 교실
05 우포생태교육원 전경
06 우포늪

된다. 1억 년의 시간이 상상이나 가는가. 현생 인류라 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태어난 것은 4만~5만 년 전에 불과하다. 최초의 인류라고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온 것은 300만 년 전이라니. 한반도가 시작될 즈음에 함께 시작된, 거대한 시간이 만들어낸 ‘생태의 보고’ 우포가 경이로울 따름이다.

무엇보다 우포에는 우리나라 습지교육의 1번지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이 운영돼 생태체험학습과 체험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1997년 3월 유어초등학교 회룡분교장이 폐교하면서 1999년 8월 시민단체가 우포생태학습원을 설립했다. 2008년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경남 개최를 계기로 교육청 최초의 습지교육기관인 우포생태교육원이 설립돼 학교 교육과정에 바탕한 습지 교육이 시작됐고, 2016년 9월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으로 경남을 대표하는 습지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우포교실, 따오기 교실, 생태전시실을 비롯해 실외에는 인공습지 2곳과 식물재배원 등이 마련돼 있다. 누리집을 통해 ‘우포에서 놀자’(단체와 가족) 프로그램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다. 친환경 교육장인 만큼 쓰레기 등 다녀간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안 된다.

가을 공기에는 꽃향기가 있다. 그 향기를 진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창녕으로 떠나보자.

남지체육공원
 ● 주소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35-25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
 ● 주소 창녕군 유어면 대대길 8(대대리 387-1번지)
 ● 운영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휴관)
 ● 문의 055-532-2758
 ● 누리집 <https://gnse.gne.go.kr/upo/main.do>
 * 우포생태교육원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는 누리집을 통해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06

과스르스 꽃강에 서면
사슴이 일어나 이리씩은지 않게 된다.
저평에 저마다 꽃을 피워 내면서
꽃들은 다른 꽃을 다치게 하는 법이 없다.
꽃 피는다는 게 누군가를 밟고서
웃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꽃들은 이미 알기 때문이다.
하늘하늘 흐들리는
과스르스 꽃강이 아름다운 것은
꽃과 더불어 잎도 꽃기도
기쁘게 즐기기 때문이다.
그때쯤 하늘은 한 번 더 웃어준다.
제 그늘은 한사코 간직하면서
꽃은 그늘 아래 웃느라지 않는다.

- 이새흙, 과스르스 꽃강에 서면 -



작은 학교, 큰 행복! <다안이네 거창살이>

아빠 류광우-엄마 김리안

첫째 류다안(거창주상초 1학년)

둘째 류다겸(6살)



‘맹모삼천지교’가 옛말이라지만, 자라는 환경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고 확실하다. 부산에서 거창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삶의 배경을 바꾼 다안이네 역시 요즘 ‘사는 곳’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작은 학교’ 주상초등학교에서 누리는 행복은 더없이 크고 확실해 보였다.

주택살이 꿈꾸던 도시인, 귀촌인 되다

거창 읍내를 조금 벗어나자, 가을 시계와 함께 노랗게 익어가는 논이 보인다. 논길 사이를 조금 달려 다른 듯 닮은 주택단지 중 한 집인 다안이네 집에 닿았다. 다안이가 태어난 곳은 부산. 다안이네가 거창으로 이사를 결심한 이유를 먼저 물었다.

엄마 김리안 “부산에서 아파트 12층에 살았는데 2017년 포항 지진 여파로 집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는데, 한 달 동안 여진이 계속되면서 무서움이 더해졌어요. 그때 다안이가 생후 5개월이었는데 지진을 연달아 겪고 보니 ‘주택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직업 덕분에 물류가 닿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았다. ‘주택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사를 알아보다가 남편 류광우 씨가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고향 거창이 들어왔다. 주택으로 가려던 것에서 귀촌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탁 트인 황금 들녘, 서덕들이 내려다보이는 거창군 위천면에서 2년을 보낸 뒤 지금의 집에 자리 잡았다.

거창에 온 후 가족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일단 지역사회 관련 활동이 늘었다. 엄마 김리안 씨는 거창군농



01 가족의 일상이 곧 유튜브 콘텐츠
02 아파트 대신 주택살이를 택한 다안이네

민회와 함께 유기농산물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가족의 텃밭에는 조합에서 받아온 토종 씨앗이 틈틈이 자라고 있다. 아빠 류광우 씨는 ‘거창군 블로그 기자단’을 시작으로, 4년 전부터는 ‘시골TV 거창이야기’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사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빠 류광우 “귀촌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크게 짓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거창에 와서 둘째까지 낳았으니 저희 가족이 충분히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구요. 아직 구독자는 적지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학교’ 홍보대사

유튜브를 보니 귀촌 후 일상 외에도 거창 관내 작은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이 눈에 띈다. 모두 첫째 다안이의 입학 위해 자료조사 차원에서 학교를 방문하며 만든 영상이라고 했다. 일찍부터 작은 학교 입학을 염두에 두었던 만큼, 관내 작은 학교 입학설명회에 모두 다녔다. 배



03 다안이 주상초등학교 입학식 날
04 보호자모임 주관 어린이날 아침맞이 행사
05 집 뒤뜰 텃밭 역시 좋은 놀이터가 된다
06 5월 선생님들을 위해 모인 보호자모임
07 유튜브 (시골TV 거창이야기)에서 다안이네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움중심수업은 물론이고 수영부터 승마까지 학교마다 특화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지만, 고민 끝에 주상초등학교 입학 을 택했다.

엄마 김리안 “보호자모임 관계자들이 직접 입학설명회에 와서 주상초등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녀 셋을 모두 주상초에 보내는 학부모도 있었는데 얼마나 흡족하면 세 자녀를 모두 주상초등학교에 보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빠 류광우 “주상초등학교는 행복맞이학교와 행복학교도합 8년 차거든요. 입학설명회에 갔는데 행복학교가 가진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자랑을 안 하지?’ 하는 마음에 유튜브 영상까지 찍었어요.”

작은 학교에서 누리는 큰 행복

입학을 결정한 뒤 단 하나, 6명의 입학생 가운데 다안이 혼자 여자라는 점이 걸렸지만 그 걱정이 무색하게 다안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했다. 이 과정에는 다안이의 외향적인 성격도 한몫했지만, 학년 구분 없이 배우고 뛰노는 학교 분위기, 그리고 보호자모임의 적극적인 활동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학교 구성원이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특히 보호자모임 활동 이야



기를 듣다 보니 다안이보다 엄마 아빠가 학교에 애정이 깊어 보이는 듯했다.

아빠 류광우 “입학 전부터 학부모들끼리 많이 친해졌어요. 그 중심에는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본인 집으로 학부모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열린 분이거든요. 교장실도 언제나 열려 있고요. 입학 전에 다 같이 남해 상주초등학교로 견학 겸 MT도 1박 2일 다녀왔고, 한 달도 안 돼서 야유회도 다녀왔어요.”

4월, 보호자모임 주관으로 열린 ‘놀이꽃이 피었습니다’ 행사는 전교생 38명에 재학생 가족, 졸업생까지 8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5월도 그냥 보낼 리 없었다. 어린이날에는 등굣길 깜짝 아침맞이 행사를, 스승의날에는 교사부터 통학버스 기사까지 학교 구성원 한 명 한명 이름을 담은 손팻말을 직접 만들어 등굣길 이벤트를 벌였다. 학부모 동아리 활동에도 진심이어서, 동아리 ‘달빛공방’에서 직접 만든 원목의자 자랑에, 취재 당일에는 댄스 동아리 창단을 위해 탐방을 다녀왔다는 이야기까지 자랑이 빼곡했다.

아빠 류광우 “학교 단위 행사 기획은 물론이고 수시로 소모임을 가질 정도로 보호자모임 사람들이 서로 친해졌어요. 다들 모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좀 더 발전할까’ ‘아이들한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주상 가족’이라 할 수 있죠.”

함께할 여지가 많은 작은 학교, 그리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부모. 작은 학교에서 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 모두 열의를 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볼게 된다. 끝으로 엄마, 아빠가 다안 이, 다겸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물었다.

엄마 김리안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10년, 15년 뒤에는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저희가 아는 것과 가진 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 같아요.”

우리말 돋보기

여섯 번째 경남의 한글학자

이달에는 제577돌 한글날을 맞아 경남의 한글학자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모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주시경 등이 1910년 무렵에 조선 광문회에서 편찬하다 끝내지 못했는데요. 이후 1930년 한글날 기념식 석상에서 108명의 발기로 조선어사전편찬회가 만들어져 사전 편찬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졌고, 1942년 10월~1943년 4월 33명이 일제에 붙잡혔습니다. 33명 가운데 경남 지역 출신 이윤재 선생과 이극로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외 이윤재(1888~1943)

김해에서 태어난 한외 이윤재 선생은 일제강점기 한글 운동에 헌신한 분입니다. 그의 호는 '큰 산'을 의미합니다. 이윤재 선생은 야학 교사로 일하며 국어 연구·한글 보급을 펼쳤습니다.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평양 감옥에서 3년간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40여 종의 신문·잡지에 글을 발표했으며 일제의 탄압 아래 꾸준히 우리말을 연구·보급한 조선어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윤재 선생은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두 번째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요. 수양동우회는 1926년에 이광수 등 지식인들이 계몽 운동과 독립운동을 위하여 국내에 조직한 흥사단 계열의 단체로 일제가 1937년에 수양동우회와 관련된 지식인 18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이윤재 선생은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을 해오다가 1942년 일제에 불시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인데요. 이윤재 선생은 고초를 겪다 함흥 감옥에서 1943년 12월 8일 순국했고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고루 이극로(1893~1978)

의령에서 태어난 고루 이극로 선생은 1927년 독일 베를린대를 졸업한 후 귀국해 한글 운동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의 호는 '골고루'에서 따왔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극로 선생은 사전 편찬 기금을 모금하는 데 핵심적으로 활약했는데요. 이극로 선생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1935년 그의 건물을 조선어학회에 사례하게 했고 사전 편찬 비용을 확보하고자 비밀 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극로 선생은 일제로부터 조선어학회 회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을 받았는데요. 함흥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1945년 석방되었습니다. 이극로 선생은 1948년 월북했다는 이유로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 베를린대에 조선어강좌를 개설해 우리말을 가르쳤고 이광수의 <허생전>을 활자로 찍어 내는 등 우리말과 우리글을 보존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귀국 후에는 조선어연구회에 입회하여 어문 운동을 펼쳤고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의 실질적 대표로서 우리말 사전 편찬을 진두에서 지휘한 사람입니다. 한편 의령군은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국회와 경남도청에서 지난해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의령 건립을 위한 학술발표회'를 열었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01 김해나비공원 내 이윤재 선생 기념조형물
02 한글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 국립박물관인 김해한글박물관의 제1전시실. 관람객이 직접 유물들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볼 수 있다.
03 김해한글박물관 내부
04 영화 <말모이> 중 한 장면.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윤계상 분)의 실제 모델이 이극로 선생이다





학교폭력
예방웹툰

당
신
도

모
르
는

사
이
에

9화

웹툰작가 **앵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하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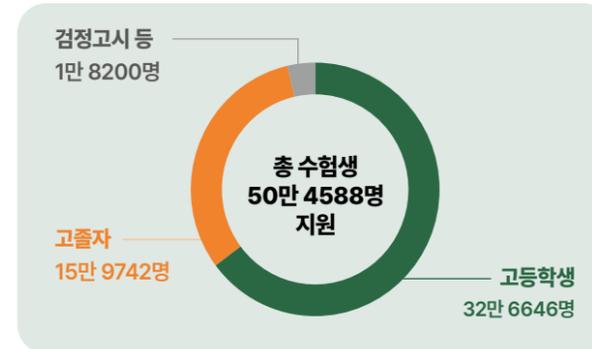
지난 호에서는 수시모집 전형별 특징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생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문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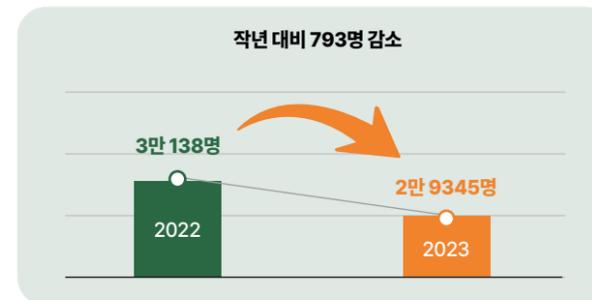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문항	45	30	45	20	과목당 20	과목당 20	과목당 30
유형	5지선다형	5지선다형, 단답	5지선다형(듣기17문항)	5지선다형	5지선다형	5지선다형	5지선다형
배점(문항)	2,3점	2,3,4점	2,3점	2,3점	2,3점	2,3점	1,2점
배점(전체)	100점	100점	100점	50점	과목당 50점	과목당 50점	과목당 50점
시간	80분	100분	70분	30분	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과목당 40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전년 대비 고교생은 줄었고 고졸자와 검정고시 등 수험생은 증가하였습니다. 고졸자 및 검정고시 등 엔(N)수생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치인데요. 영역별 지원자 수를 보면 한국사 영역은 전원 응시, 국어 영역 50만 1321명(99.4%), 수학 영역은 47만 8083명(94.7%), 영어 영역 49만 8502명(98.8%), 탐구 영역 49만 2519명(97.6%),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7만 8849명(15.6%)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어 지원자 중 30만 6418명(61.1%)은 화법과 작문을, 19만 4903명(38.9%)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고, 수학 지원자 가운데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22만 3550명(46.7%)이며 미적분과 기하는 각각 23만 5100명(49.2%), 1만 9433명(4.1%)입니다. 탐구 지원자 중 48만 7069명(98.9%)은 사회·과학탐구를, 5450명(1.1%)은 직업탐구를 선택하였으며 사탐만 지원한 수험생은 23만 4915명(48.2%), 과탐만 선택한 지원자는 23만 2966명(47.8%), 1만 9188명(4.0%)은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지원 현황



졸업예정자 2만 2582명(77.0%), 졸업자 6050명(20.6%), 검정고시·사·기타 학력 인정자 등 713명(2.4%)으로 지난해 대비 졸업예정자는 줄었지만, 졸업자·기타 학력 인정자 비율은 다소 증가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기본 방향

먼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며, 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 범위,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다라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EBS 수능교재·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고 하는데요. 영어능력(말하기·듣기·읽기·쓰기)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통 교육과정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로 꾸러질 예정입니다. 수학 영역은 종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 국어와 영어 영역의 경우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며, 수학·탐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으로,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전략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별로 지원전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서 제공하는 활용지표 중 '등급'은 수시모집에서 활용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정시모집에서 활용합니다.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우선이므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최저 충족 반영 영역이 2~3개 영역이나 자신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하며, 정시모집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4개 영역(국·수·영·탐)에 집중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별 수능 반영 방법의 차이점을 잘 살피고 영역별 집중도를 다르게 할 필요 역시 있습니다. 올해는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특징으로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유형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소 공부 방식을 유지하며 9월 모의평가 문제 유형을 참고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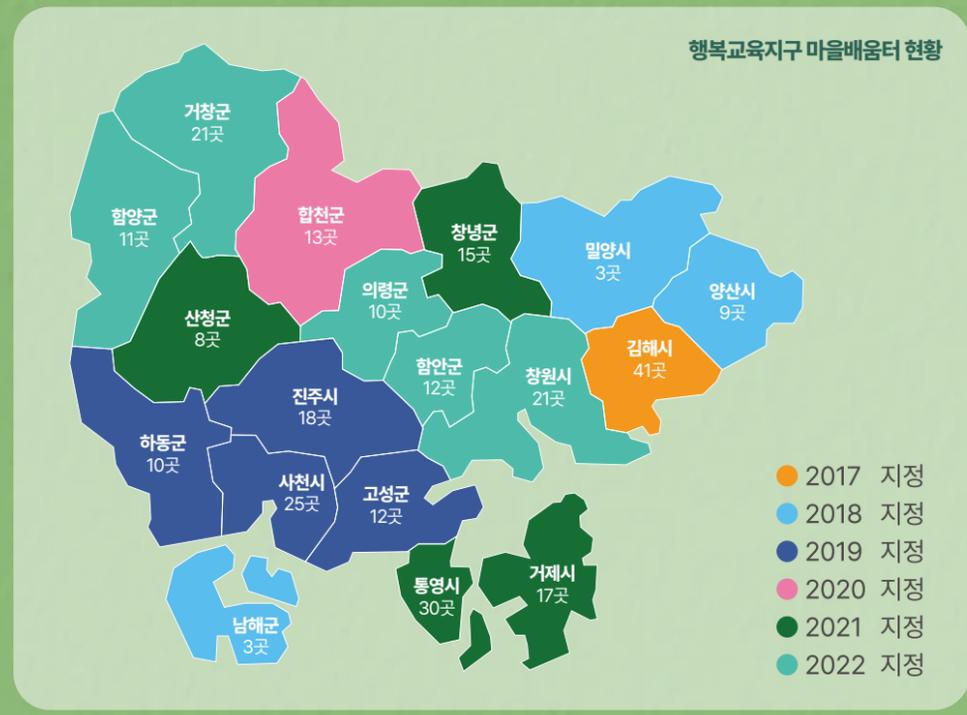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교육지구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이들의 배움이 학교를 넘어 마을로 확장되는 교육, 행복교육지구에서는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교육지구란 무엇일까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뜻합니다. 서로 돕고, 함께 배우는 교육. 오늘은 경남의 행복교육지구 현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다.



1



행복교육지구는 2017년 김해시를 시작으로 2022년 이후 18개 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지원(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마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학교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 조성(마을배움터 운영, 마을배움터 네트워크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



행복교육지구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배움터 279곳을 운영합니다. 학교와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학생동아리, 각종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는 학교형 마을배움터(16개 지역, 75개교), 지역 기관(단체)이 운영하는 지역형 마을배움터(16개 지역, 204곳),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며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동아리와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마을학교(6개 지역, 9곳)가 있습니다.

2017	김해	교직원, 학생, 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김해행복교육도시
2018	밀양	교직원, 학생, 지역민 토론 문화 조성
	양산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행복교육지구 운영
	남해	지역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마을학교 운영
2019	진주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마을학교 운영
	사천	마을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프로젝트 운영
	고성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꿈키움 마을학교 운영
2020	합천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합천	마을과 함께하는 초·중·고 연계 협력교육과정 운영
2021	거제	블루시티 거제 푸른 꿈 찾기 프로젝트 운영
	창녕	따오기 마을교사 양성 및 운영
	산청	지리산 꿈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2022	통영	통통(統通)한 꿈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창원	소통과 협력의 온 마을 배움터 가꾸기
	의령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의령행복교육지구
	함안	함께 성장하는 아라가야 품 안! 함안행복교육지구
	합양	미래를 만들어가는 배움과 성장의 함양행복교육지구
거창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거창마을교육공동체	



경남교육 NEWS

경남교육 NEWS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미래를 선언하다

9월 14~15일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의 밤과 개원식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9월 15일(금)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에서 개원식을 열고 경남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선언했다. 지난 2018년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조성 계획을 수립한 뒤, 의령군과 설립 업무 협약을 거쳐 2023년 3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직속 기관을 설립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은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자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톡톡'과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아이북' 등의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융합 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경남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계획이다. 특히 의령 지역의 푸른 자연 위에 세워진 '체험그릇', '상상그릇', '공감그릇' 세 건축물은 도면을 공개할 때부터 지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경남 학생의 생각을 담고 배움을 즐기는 교육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또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누리과 배움누리 프로그램은 교과 간 영역을 넘어 창의 융합형 인재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원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립과 공존의 경남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한문철 변호사 초청 특강

경남교육청, 9월 18~19일 창원·진주서 학부모·교직원 880명 대상 진행

9월 18~19일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창원컨벤션센터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오전과 오후 총 4차례에 걸쳐 학부모와 교직원 각 220명씩 총 88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 주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안전 수칙 지키기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주의 사항을 중요하게 다뤘다. 특히, 한 변호사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경남교육가족을 위해 이날 강의를 유튜브 채널 '경남교육'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고 더 많은 학부모에게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신유진 녹색어머니 회장은 "다양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을 알게 되고 예방법을 익힐 수 있어 유익했다" 라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불편한데 재미있는 학생수련체험교육 꿈꾼다

내년부터 생태전환교육 중심 학생 수련기관 운영

내년부터 학생교육원, 덕유학생교육원 등 4개 수련기관을 생태전환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수련기관 재구조화 종합 계획'을 9월 12일 발표했다. '산들산들 이음'으로 이름 붙인 경남형 수련·체험교육은 자립과 공존, 실천의 지구 생태 시민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기존 심신 수련 중심의 프로그램 방식에서 벗어나 수련기관이 개발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선택해 진행한다. 종합 계획에는 △수련 기간에 불편을 감수하는 기후 행동 '모두모두' 생활 실천 △체험 수련 전후에 '산들산들 이음' 교육과정 운영 △선택형 모듈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선택권 확대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련기관과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 △'산들산들 이음' 교육지원단 운영 △덕유학생교육원 거점교육원 지정 △도내 수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습생태계 확장 친친 환경 수련기관 환경 조성 등 생태전환교육 중심의 전문 수련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수련 활동에서 익힌 생태 중심의 경험이 일상생활, 학교생활, 가정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산청고 인성교육, 빛을 발하다

전국 감사편지쓰기 단체우수상 수상으로 '땡큐트릭' 선물받다

산청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밝고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해 주변의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참여활동의 일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하는 전국 감사편지 쓰기 대회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하였다.

전교생 340명이 친구, 가족, 선생님, 소방관, 의료진 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분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그 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개최한 제8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초록우산으로부터 땡큐트릭을 전달받아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이 제공받는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산청고 학생회장(2학년 류해민)은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들,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 걱정 많으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편지쓰기 시간이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성찰과 서로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며 땡큐트릭에서 간식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도 감사함을 표했다.



교육위원에게 듣는다 예상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의힘·밀양2)

Q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가곡동 지역구 교육위원회 예상원 의원(밀양2)입니다. 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는 것이 도리겠으나, 매거진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경남도의회에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는 경남교육 가족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감사사를 전합니다.

Q 현재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경남교육정책은 무엇인가요?

A 지난해 교육위원회 위원 활동에 돌입하면서부터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다. 제 지역구인 밀양에는 타 지역에 비해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구성을 띠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해나가는 데 부족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보완해 교육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도내 대안학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 이 과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Q 의원님의 지역구인 밀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와 관련해 새롭게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저에게는 밀양을 ‘교육도시’로 거듭나게 하고픈 포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소망으로 머물 수 있겠으나, 조금만 시야를 확대해 본다면 국가 균형발전 측면과 맥이 닿아 있기도 합니다.

밀양과 같은 도농 복합 지역은 도심지에 비해 교육 정보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교육 영역이 그러하지요. 이 때문에 저는 지역의 공교육이 사교육이 가진 효율적 측면을 흡수해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이 통합될 때, 지역사회가 되살아나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밀양에 착공한 경남진로교육원과 같은 교육기관이 도내 곳곳에 설립되고 지역의 학생들이 이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교육위원의 책무라 봅니다.

Q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 도의회를 기대하는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개원 이후 경남도 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했으나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도민들을 잘 받드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소식

경상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개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 5분 자유발언 등



경상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가 9월 12일(화)부터 21일(목)까지 10일간 개최하였다. 이장우 의원 등 11명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었고, 서인호 의원 등 8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경남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경상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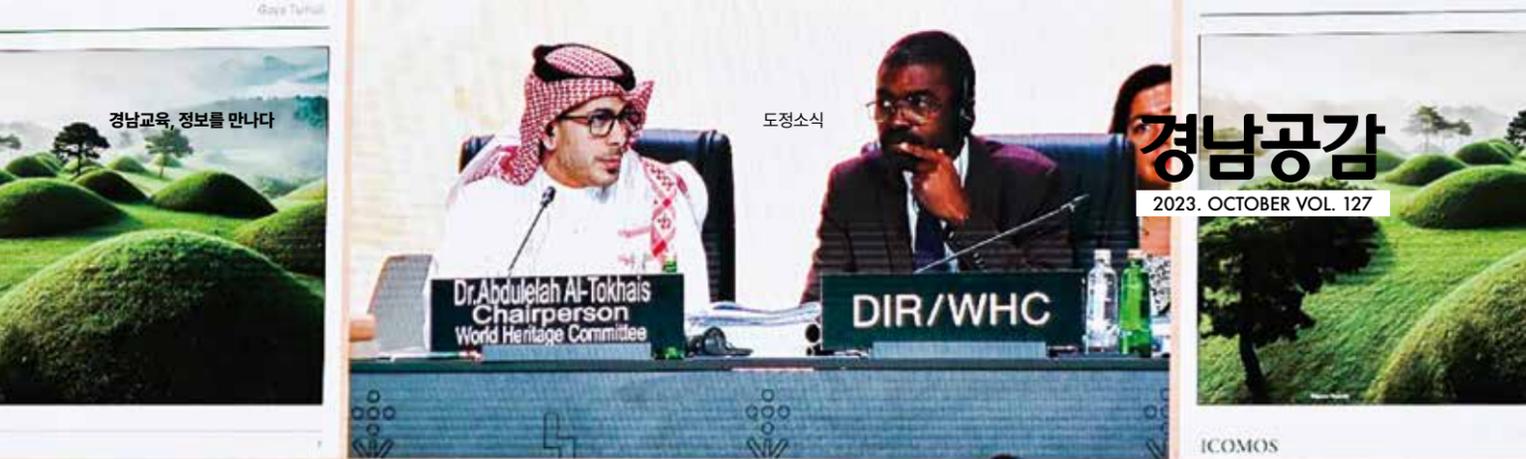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교육위원회(18일)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남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고시 개정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위원회 미래교육원 현지의정활동 실시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영)는 9월 15일 전국 최초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설립 축하를 위해 개원식에 참석하였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조성 계획 수립 후, 의령군과 설립 업무협약을 거쳐 2023년 3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을 설립하였다.



“인류 공동이 보존할 독보적 가치 있다”

가야고분군, 마침내 세계유산 등재

지난달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가야고분군이 마침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2012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열정을 쏟아부은 경남도가 10여 년 만에 비로소 이뤄낸 성과다. 이번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경남 5곳, 경북 1곳, 전북 1곳으로 구성돼있다.

우리나라의 16번째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경남 5곳 분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하 이코모스)가 7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지난달 17일 마침내 등재했다. 이로써 1500년 전 역사 속의 가야문화권이 ‘세계 속의 가야’로 부활되어 재조명될 전망이다. 가야고분군은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경남의 ▲대성동고분군(김해) ▲말이산고분군(함안) ▲옥전고분군(합천) ▲송학동고분군(고성)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창녕)과 경북의 ▲지산동고분군(고령), 전북의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남원)이다. 이번 등재로 가야고분군은 우리나라의 16번째 세계유산이 되었다. 경남도에서는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통도사(2018년), 남계서원(2019년)에 이어 4번째 세계유산이 됐다.

가야는 주변국과 공존하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이었던 연맹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이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와 공존하였던 가야의 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며, 동아시아 고대문

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했다. 지리적 분포, 입지, 고분의 구조와 규모, 부장품을 통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각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여러 세력이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비교적 동등한 수평적 지위로 결속했던 가야연맹의 정치체계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10여 년간 경남도 노력 결실... 통합관리 체계 구축 예정

가야고분군의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경남도가 10여 년간 노력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경남도는 2013년 6월 문화재청에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잠정목록 등재 신청 등 10여 년간 노력해왔다. 경남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해 고분군 내 민간 소유부지와 완충구역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고분군 7곳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가야고분군 보전과 확대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지원

글 박정희

을 해 나갈 것이다. 해인사, 통도사, 남계서원 등 세계유산 관광상품 개발 및 남해안 관광벨트 등과 연계해 경남을 찾아오는 세계인들이 ‘가야’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긴 시간 잠들어 있던 고대가야가 세계유산 등재로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이들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새겨 나가길 기대한다.

김해 대성동고분군

김해 대성동에 있는 대성동고분군은 1~5세기 가야연맹을 구성했던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고분군이다. 중국·일본에서 수입된 교역품이 금관가야가 동북아시아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함안 말이산고분군

함안 가야읍 도항리·말산리에 위치한 말이산고분군은 1~6세기 가야연맹을 구성했던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신청유산 중 가장 오랜 기간 조성됐다. 고분군은 남북으로 약 2km 정도 이어진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합천 옥전고분군

합천 쌍책면 성산리에 위치하는 옥전고분군은 4~6세기 쌍책지역 일대의 가야 정치체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 용과 봉황으로 장식된 대도와 철제무기류, 금은 장신구 등이 출토되어 가야 금속공예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고성 송학동고분군

고성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송학동고분군은 5~6세기 가야연맹을 구성했던 소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 해안가의 고성분지에 조성되어 있는 고분군은 당시 소가야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준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창녕 창녕읍 교리와 송현리에 걸쳐 있는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5~6세기 가야연맹을 구성했던 비화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 묘제와 부장품을 통해 신라와 자율적으로 교섭했던 가야 정치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 01 김해 대성동고분군
- 02 함안 말이산고분군
- 03 합천 옥전고분군
- 04 고성 송학동고분군
- 05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아이좋아) 9월 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깊어가는 가을, 소풍 떠나기 좋은 경남의 명소를 알려주세요!

진해 해안길과 꽃길

고순아 님

진해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꽃길로 유명한 곳으로 가을에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진해해양공원은 다양한 해양 생물과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제공합니다. 해안을 따라 산책하며 가을 햇살을 즐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진해 꽃길은 가을에도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진해 꽃축제 기간에는 수많은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진해의 맛있는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맛집들도 풍부합니다.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보는 것은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해는 가을 소풍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거창창포원

고주영 님

거창창포원은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와 핑크몰리로 물드는 곳입니다. 넓은 꽃밭에서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수목원

이정훈 님

가을 단풍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단풍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시설도 잘 되어있고, 걷기에도 편안해서 아이들과 방문하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산청 동의보감촌과 무릉교

김진만 님

산청의 무릉교는 동의보감촌 내부에 위치한 211m로 이루어진 출렁다리로 아파트 10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요.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동의보감촌 뷰는 산청 전망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탁 트인 자연풍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의보감촌은 국내 최초 한방테마파크라고 해요. 울긋불긋한 산자락과 어우러진 출렁다리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산청 동의보감촌과 무릉교를 추천합니다.

거제식물원

권현식 님

거제식물원을 추천해요. 아이들도 어른도 좋아하는 정글동 식물원이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으며 초록빛 가득한 식물들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가끔은 초록빛을 느끼는 것도 좋겠죠!

통영 이순신공원

조경희 님

전망대와 문화센터, 이순신 동상 등 볼거리가 많아 아이들과 나들이하기 좋고 해상공원으로 바다가 탁 트여있어 가슴까지 시원해져서 좋습니다.

본 이벤트는 <아이좋아> 소식지 9월호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댓글 이벤트입니다. 매달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10월호 이벤트는 9월 말 경남교육청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에 공개되는 예고편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월 호
예고편 영상

2023년 10월 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10월 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 '제22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양산보광고등학교 독서토론 동아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보강신기 동방신기 보광신기 보광의별
- 2017년 고성에 신설된 거점 기숙형 중학교로 인근 세 개 면(삼산면, 하일면, 상리면)에 있는 중학교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학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소가야중학교 중가야중학교
 대가야중학교 가야중학교
- 학생들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아이디어 창출 교육을 통한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운영되는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연계하여 김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문화교육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자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9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정답 1. ㉠ 마산용마교 / 2. ㉠ 행복교육지구 / 3. 그린스마트 / 4.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 당첨자 사천 동성초 김가영 / 거제 내곡초 이영란 / 창원 동진여자중 김서현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3년 10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전자우편(gne8@hanmail.net)
 - 문의 055-278-1784

* 유의사항 :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 정보가 누락될 경우 정답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또는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자유 형식)를 아래로 보내주세요.

- 제출 기한 2023년 10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전자우편 gne8@hanmail.net
- 전화번호 055-278-1784

경남교육 SNS

경남교육 정책과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모집

Q **처음학교로**

2023.11.1.(수) 시작

모집일정

< 우선모집 >
11월 1일(수)~3일(금)

< 일반모집 >
11월 17일(금)~21일(화)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처음누리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세요.

에듀콜센터 1544-0079+9+1



처음학교로
누리집 바로가기



처음학교로
블로그 바로가기